

# 경제전망보고서

2022. 8

여 백

# 차 례

## < 요약 >

I. 대내외 여건 점검 .....	1
1. 세계경제 .....	1
2. 국내경제 .....	11
<주요 전망 전체치> .....	14
II. 거시경제 전망 .....	15
1. 경제성장 .....	15
2. 고용 .....	27
3. 물가 .....	31
4. 경상수지 .....	35
III. 주요 현안점검 .....	36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리스크 점검 .....	36

## 요 약

①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2.6%, 2.1% 수준을 나타낼 전망

○ 국내경제는 2/4분기중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 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둔화 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개선과 일상회복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자본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회복이 지연될 전망
- 건설투자는 건설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분양물량 증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상품수출은 중국, 미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증가세가 보다 약화될 전망

② 취업자수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74만명, 14만명 증가할 전망

○ 향후 취업자수는 증가세가 이어지겠으나 경기 회복세 둔화 등으로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전망

③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5.2%, 3.7%를 나타낼 전망

-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압력 지속,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 전망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전망

④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금년중 370억달러, 내년중 340억달러 수준을 나타낼 전망

- 무역수지 적자흐름이 이어지면서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

경제 전망

(%)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 GDP <sup>1)</sup>	4.1	2.9	2.4	2.6	1.7	2.4	2.1
민간소비	3.7	4.2	3.8	4.0	3.1	2.1	2.6
설비투자	9.0	-7.1	-0.2	-3.8	3.1	-1.4	0.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4.5	3.6	4.0	3.2	3.7	3.5
건설투자	-1.6	-4.3	1.0	-1.5	3.3	1.3	2.2
상품수출	10.5	5.9	0.8	3.2	-1.5	4.6	1.6
상품수입	12.8	5.2	0.6	2.9	0.9	3.2	2.1
▪ 취업자수 증감(만명) <sup>1)</sup>	37	94	53	74	10	18	14
▪ 실업률	3.7	3.2	3.0	3.1	3.7	3.3	3.5
▪ 고용률	60.5	61.6	62.1	61.9	61.6	62.4	62.0
▪ 소비자물가 <sup>1)</sup>	2.5	4.6	5.9	5.2	4.6	2.9	3.7
식료품·에너지 제외	1.4	3.1	4.1	3.6	3.7	2.5	3.1
농산물·석유류 제외	1.8	3.6	4.6	4.1	4.3	3.0	3.6
▪ 경상수지(억달러)	883	248	122	370	95	244	340

주: 1) 전년동기대비

# I. 대내외 여건 점검

## 1.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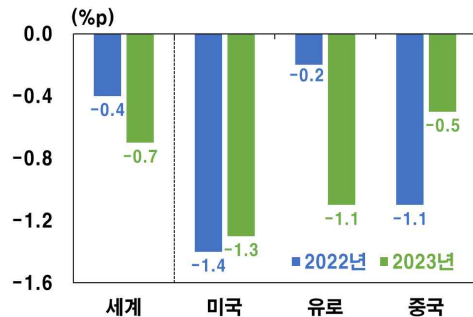
-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전망
  - 2/4분기중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가 부진\*
    - \*글로벌 전산업PMI: 22.1/4분기 52.5 → 2/4분기 52.0 → 7월 50.8
  - 향후 주요국 금리인상, 유럽 가스공급 축소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될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상황, 에너지·원자재가격 추이, 중국 방역 조치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전망시점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		
IMF	22.7월	6.1	3.2	2.9
(선진국)		5.2	2.5	1.4
(신흥국)		6.8	3.6	3.9
OECD	22.6월	5.8	3.0	2.8
Global Insight	22.7월	5.8	2.7	2.6
6개 IB 평균	22.7월	6.2	2.9	2.7

자료: 각 기관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 변화<sup>1)</sup>



주: 1) 22.4월 대비 7월 조정폭  
자료: IMF

□ 세계교역은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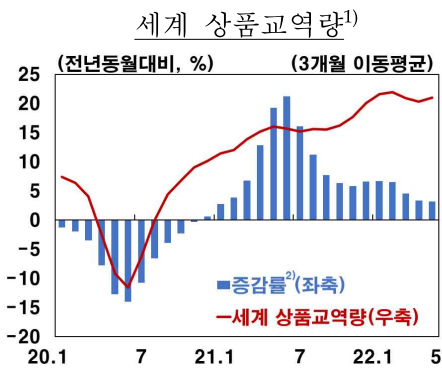
- 2/4분기중 상품교역\*은 글로벌 공급차질, 중국 등 주요국 성장 둔화 등으로 회복흐름이 약화

\* 세계상품교역량(CPB, 3개월 이동평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2.1월 6.7 → 2월 6.5 → 3월 4.6 → 4월 3.3 → 5월 3.2

- 서비스교역은 입국제한 완화\* 등으로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회복흐름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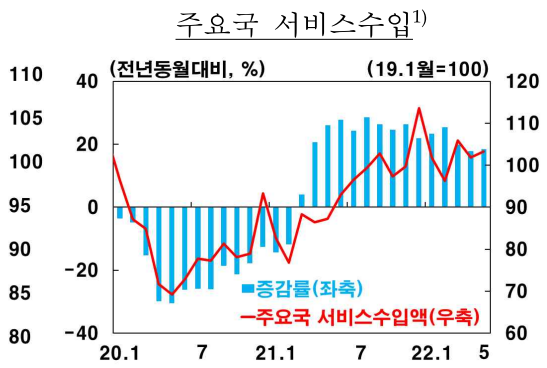
\* 글로벌 출입국 통제지수(옥스퍼드大, 최대값 4):  
22.1/4분기 2.2 → 4월 1.8 → 5월 1.6 → 6월 1.4 → 7월 1.3

- 향후 상품교역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증가세가 약화되는 반면 서비스교역은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



주: 1) 수출입 물량 평균 기준  
2) 3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CPB



주: 1) 주요 13개국 수입금액 기준

자료: WTO

## (미 국)

□ 금리상승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

- 2/4분중 민간투자 부진 등으로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GDP성장률(전기대비, %): 21.4/4분기 1.7 → 22.1/4분기 -0.4 → 2/4분기 -0.2<sup>#</sup>

# 기여도(%p): 개인소비 0.2, 민간투자 -0.7, 순수출 0.4, 정부지출 -0.1

- 7월중 실업률이 팬데믹 직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고용상황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제조업 심리지표는 2개월 연속 하락

- 향후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겠으나, 고용 및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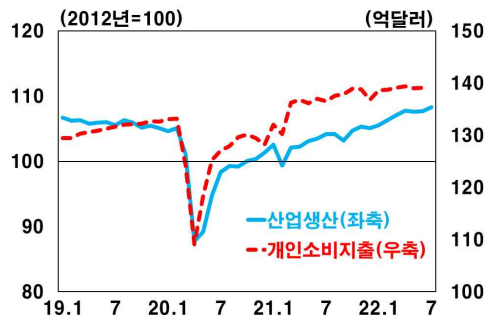
▶ 미국 성장률 전망(%)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 IMF(22.7월)	5.7	2.3	1.0
· OECD(22.6월)		2.5	1.2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월대비, %)			
	22.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0.7	-0.1	0.0	0.6
서비스소비	0.2	0.4	0.1	..
소매 판매	0.7	0.4	0.8	0.0
실업률	3.6	3.6	3.6	3.5
ISM제조업지수 <sup>1)</sup>	55.4	56.1	53.0	52.8
ISM서비스업지수 <sup>2)</sup>	57.1	55.9	55.3	56.7

주: 1) 기준치 = 50  
 자료: 미 연준, 경제분석국, 인구통계국, 노동통계국, ISM

미국 산업생산 및 개인소비지출



자료: 미 연준, 경제분석국



## ( 유로지역 )

□ 에너지 수급 차질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둔화될 전망

- 2/4분기중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양호한 서비스업 실적으로 회복흐름이 지속\*

\* GDP성장률(전기대비, %): 21.4/4분기 0.4 → 22.1/4분기 0.5 → 2/4분기 0.6

- 그러나 공급병목, 물가급등 등으로 7월 이후 제조업 PMI가 기준치(50)를 하회하고 소비심리\*도 크게 약화

\* 소비자신뢰지수(기준치=0): 22.2월 -9.6 → 6월 -23.8 → 7월 -27.0 → 8월 -24.9

- 공급차질 및 금융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향후 가스공급이 중단될 경우 경기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

\* IMF는 가스공급 중단시 유로지역 전체 성장률이 향후 1년간 1~2%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22.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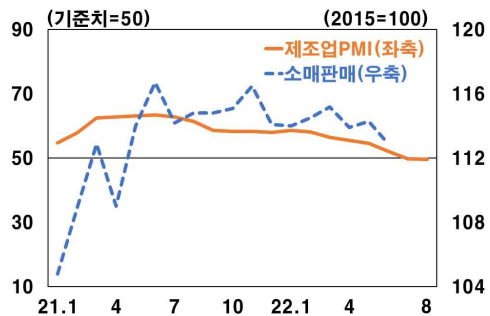
▶ 유로지역 성장률 전망(%)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 IMF(22.7월)		2.6	1.2
· OECD(22.6월)	5.3	2.6	1.6

### 유로지역 주요 경제지표

	(전월대비, %)			
	22.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0.5	2.1	0.7	..
소매판매	-1.1	0.4	-1.2	..
실업률	6.6	6.6	6.6	..
제조업PMI <sup>1)</sup>	55.5	54.6	52.1	49.8 [49.7]
서비스업PMI <sup>1)</sup>	57.7	56.1	53.0	51.2 [50.2]

주: 1) 기준치=50, [ ]내는 8월  
자료: EU통계청, IHS Markit

### 유로지역 제조업PMI 및 소매판매



자료: EU통계청, IHS Markit

( 일 본 )

□ 완만한 회복흐름을 이어갈 전망

○ 2/4분기중 소비 및 설비투자 개선 등으로 0.5% 성장

\* GDP성장률(전기비, %): 21.4/4분기 1.0 → 22.1/4분기 0.0 → 2/4분기 0.5

▪ 4~5월중 부진했던 산업생산이 중국 봉쇄조치 완화로 6월 들어 증가 전환

○ 최근 물가 오름세\*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 글로벌 경기둔화 등은 향후 회복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 2021년 -0.2 → 22.1/4분기 0.9 → 2/4분기 2.4

▪ 6월 일평균 1.4만명(7일 이동평균)까지 감소했던 코로나 신규확진자수는 8월 들어 20만명대 수준으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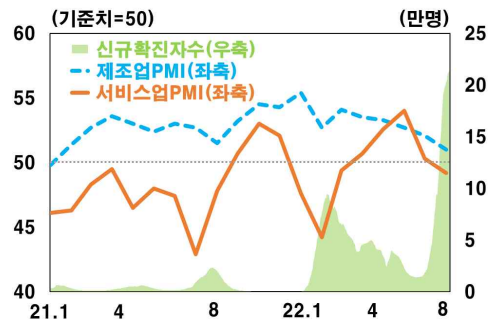
▶ 일본 성장률 전망(%)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 IMF(22.7월)	1.7	1.7	1.7
· OECD(22.6월)		1.7	1.8

일본 주요 경제지표  
(전월대비, %)

	2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1.5	-7.5	9.2	..
소매 판매	1.0	0.7	-1.3	..
수출(통관)	1.6	2.6	4.0	2.1
민간기계수주액 <sup>1)</sup>	10.8	-5.6	0.9	..
제조업PMI <sup>2)</sup>	53.5	53.3	52.7	52.1 [51.0]
서비스업PMI <sup>2)</sup>	50.7	52.6	54.0	50.3 [49.2]

주: 1) 선박 전력 제외 2) 기준치=50, [ ]내는 8월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재무성, 내각부, IHS Markit

일본 신규확진자수<sup>1)</sup> 및 PMI



주: 1) 7일 이동평균  
자료: Bloomberg, Our World in Data

## (중 국)

□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성장둔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

- 2/4분기중 봉쇄조치 및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률이 0%대로 하락

\*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21.4/4분기 4.0 → 22.1/4분기 4.8 → 2/4분기 0.4<sup>#</sup>

# 성장기여도(%p): 최종소비지출 -0.9, 고정자본형성 0.3, 순수출 1.0

- 7월중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8%, 2.7%로 전월(3.9%, 3.1%)에 비해 둔화

- 중국 당국은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세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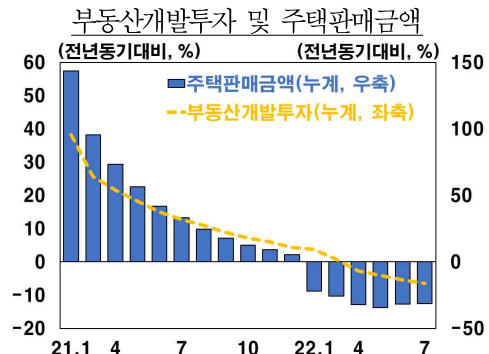
\*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소비쿠폰 발행, 지급준비율 하향 조정 등

▶ 중국 성장률 전망(%)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 IMF(22.7월)		3.3	4.6
· OECD(22.6월)	8.1	4.4	4.9

중국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2.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2.9	0.7	3.9	3.8
소매 판매	-11.1	-6.7	3.1	2.7
고정투자 <sup>1)</sup>	6.8	6.2	6.1	5.7
수출(통관)	3.6	16.4	17.7	18.0
제조업PMI <sup>2)</sup>	47.4	49.6	50.2	49.0
비제조업PMI <sup>2)</sup>	41.9	47.8	54.7	53.8

주: 1) 누계 기준 2) 기준치=50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해관총서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 신흥국 )

### □ 국가별로 성장세가 차별화될 전망

- 아세안 5개국은 양호한 수출 및 내수,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회복흐름이 이어질 전망

\* 베트남: 3월 4만명 → 7월 35만명, 태국: 2월 15만명 → 6월 77만명

-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주요국 경기둔화가 성장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수출입/명목GDP(20년): 아세안5(79.5%), 중국(34.5%), 인도(37.9%)

- 인도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내수 회복,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인도 정부는 2022~26년중 물류, 에너지, 관개 인프라 등 국가기반 시설투자를 위해 1.4조 달러(명목GDP 대비 약 6.5%)를 지출할 계획

아세안5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2.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sup>1)</sup>	4.1	2.7	5.8	..
소매판매 <sup>2)</sup>	10.8	10.5	..	..
수출(통관)	22.0	18.2	23.6	..
(對중국 수출)	15.3	9.0	4.2	..
제조업PMI <sup>3)</sup>	52.3	52.3	51.8	51.3

인도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2.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6.7	19.6	12.3	..
수출(통관)	30.7	20.6	23.5	2.1
소비자신뢰지수 <sup>1)</sup>	-	75.9	-	77.3
제조업PMI <sup>2)</sup>	54.7	54.6	53.9	56.4
서비스업PMI <sup>2)</sup>	57.9	58.9	59.2	55.5

주: 1) 인도네시아, 필리핀 제외

2) 필리핀 제외

3) 기준치=50

자료: 각국 통계청, IHS Markit, CEIC, Bloomberg

주: 1) 현재 경기 판단, 기준치=100

2) 기준치=50

자료: 인도 통계청, 인도 중앙은행, IHS Markit, CEIC, Bloomberg

○ 브라질은 원자재 수출 호조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다만 높은 물가상승률(22.6월 11.9%)과 금리인상(22.1월 9.25% → 8월 13.75%)이 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

○ 러시아는 미국, EU 등의 제재 영향으로 부진이 이어질 전망

-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규모 증가\*는 경기위축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억달러): 21.4/4분기 466 → 22.1/4분기 684 → 2/4분기 701

브라질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2.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0.5	0.5	-0.5	..
소매 판매	4.5	-0.2	-0.3	..
수출(통관)	11.3	13.5	16.2	17.4
제조업PMI <sup>1)</sup>	51.8	54.2	54.1	54.0
서비스업PMI <sup>1)</sup>	60.6	58.6	60.8	55.8

주: 1) 기준치=50  
자료: 브라질 통계청, IHS Markit, CEIC, Bloomberg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2.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1.6	-1.7	-1.8	..
소매 판매	-9.8	-10.1	-9.6	..
제조업PMI <sup>1)</sup>	48.2	50.8	50.9	50.3
서비스업PMI <sup>1)</sup>	44.5	48.5	51.7	54.7

주: 1) 기준치=50  
자료: 러시아 통계청, IHS Markit, CEIC, Bloomberg

## ( 국제유가 )

□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중반 수준으로 하락

\* 두바이유(배럴/달러, 기간중 평균): 22.6월 116 → 7월 106 → 8.1~24일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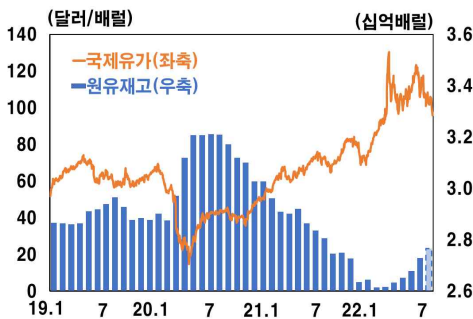
○ 對러시아 에너지 제재조치\* 확대로 상승하였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냄

\* 22.3월 미국, 영국 등이 러시아産 석유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5월에는 EU 27개국이 러시아産 원유 수입을 90% 감축하기로 결의

□ 주요 기관은 국제유가가 2/4분기를 고점으로 내년까지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낮은 재고 수준, 겨울철 천연가스 공급부족에 따른 대체 수요 증가 가능성 등은 하락폭을 제한하는 요인

국제유가<sup>1)</sup> 및 OECD 원유재고<sup>2)</sup>



주: 1) 두바이유 기준  
2) 22.8월은 전망치  
자료: Bloomberg, EIA

주요 기관의 국제유가 전망<sup>1)</sup>

(달러/배럴)

	2022 <sup>e)</sup>			2023 <sup>e)</sup>
	3/4	4/4	연간	
EIA (8.9 <sup>2)</sup> )	106	98	105	95
IHS (8.16 <sup>2)</sup> )	107	106	107	98
OEF (8.10 <sup>2)</sup> )	108	104	106	97
IB 평균 <sup>3)</sup> )	104	103	1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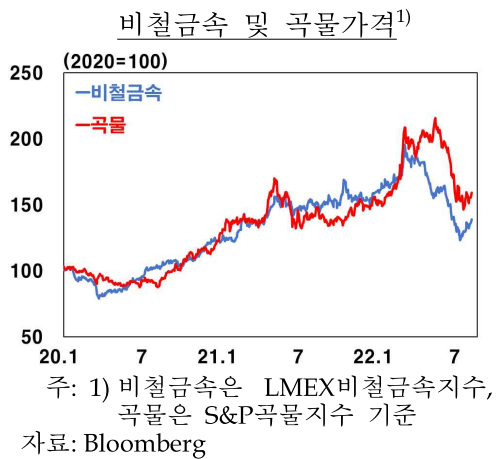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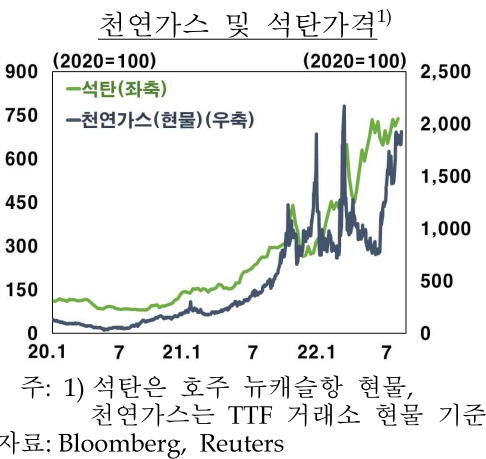
주: 1) 브렌트유 기준, 2) 전망일자,  
3) 8월 발표 IB기준(Citi, GS, JPM, Barclays)  
자료: 각 기관

## ( 기타원자재가격 )

□ 천연가스·석탄가격은 상승한 반면 비철금속·곡물가격은 하락

- (천연가스·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産 가스 공급 감소로 큰 폭 상승했으며, 이로 인한 대체수요 증가로 석탄 가격도 높은 상승세를 나타냄
- (비철금속)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감소 전망 등으로 구리를 중심으로 큰 폭 하락
- (곡물) 우크라이나 수출 재개 및 美 겨울밀 수확 시기 도래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

□ 향후 기타원자재가격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공급차질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2. 국내경제

### ( 재정지출 )

□ 금년중 재정지출은 11.0% 늘면서 지난해(9.7%)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이는 방역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두 차례의 추경(1차 16.9조원, 2차 62.0조원)에 주로 기인

○ 2023년 재정지출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 통합재정지출 (증가율 <sup>2)</sup> )	568.0 (9.7)	375.7 (14.2)	254.8 (6.6)	630.5 (11.0)	357.2 (-4.9)	260.3 (2.2)	617.6 (-2.0)
- 경상지출	502.1	331.3	224.7	556.0	307.4	224.0	531.5
- 자본지출	35.8	29.8	20.2	49.9	27.4	20.0	47.4
- 순 용 자	30.1	14.7	9.9	24.6	22.4	16.3	38.7

주: 1) 통합재정 기준 2)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조사국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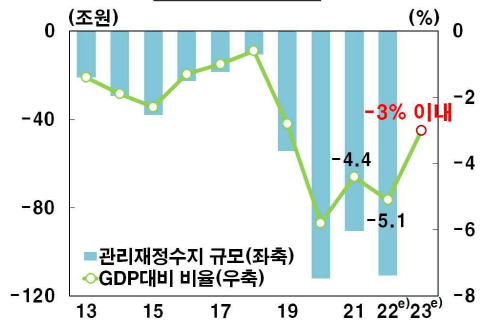
□ 2022~23년중 관리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겠으나, 향후 정부의 재정준칙에 따라 -3% 이내로 관리될 전망

### 주요 분야별 재정지출(총지출)

구분	2021 <sup>1)</sup>	2022 <sup>1)</sup>	증감
· 보건·복지·고용	212.1	229.1	17.0
· 일반·지방행정	99.7	110.8	11.1
· 산업·중기·에너지	40.1	69.4	29.3
· 교육	77.8	95.0	17.2
· R&D	27.5	29.5	2.0
· SOC	26.6	27.6	1.0
<b>총지출</b>	<b>604.9</b>	<b>679.5</b>	<b>74.6</b>

주: 1)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지출 기준  
2) 2023년은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7.7일)에 따라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을 감안하여 예산이 편성된다고 가정  
자료: 기획재정부

### 관리재정수지<sup>2)</sup>





## (부동산시장)

□ 주택매매가격은 2월 이후 보합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소폭 하락

(전월대비, %)	22.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전국	0.0	0.0	0.1	0.0	-0.0	-0.1
- 수도권	-0.0	-0.0	0.0	-0.0	-0.0	-0.1
- 비수도권	0.1	0.1	0.1	0.1	0.0	-0.0

자료: 한국부동산원

○ 주택가격전망 CSI는 5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

* (100초과시 상승전망 우세)	2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주택가격전망CSI	104	114	111	98	82	76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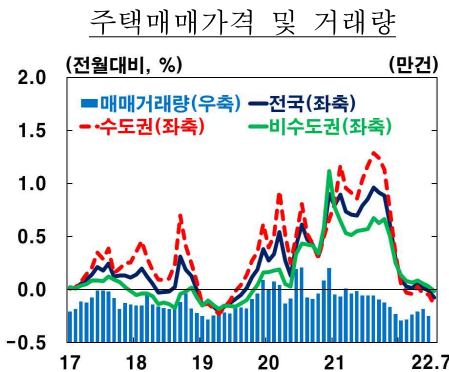
□ 주택전세가격은 전세수요의 월세화\*가 지속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

\* 전국 전세거래량 비중(전세/(전세+월세),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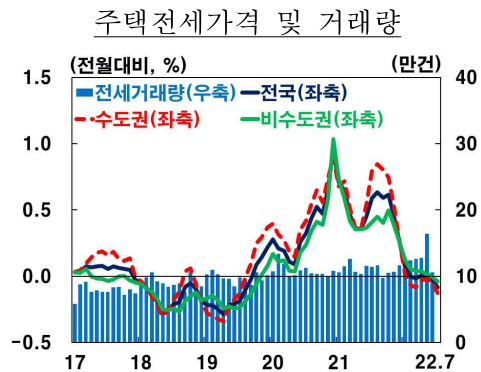
2021년 평균 56.5 → 22.3월 50.5 → 4월 49.6 → 5월 40.5 → 6월 49.8

(전월대비, %)	22.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전국	-0.0	-0.0	0.0	-0.0	-0.0	-0.1
- 수도권	-0.1	-0.1	-0.0	-0.0	-0.0	-0.1
- 비수도권	0.1	0.0	0.0	0.0	-0.0	-0.0

자료: 한국부동산원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 향후 주택매매가격은 대출금리 상승, 주택가격 상승 기대 약화 등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

○ 정부의 규제완화\*,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등은 주택가격 하방 압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종부세 개편안(다주택자 증과 폐지, 세율 인하 등)이 발표(7.21일)되었으며,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하향조정(100% → 60%, 8.2일)

\*\* 재건축부담금 감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국토교통부, 8.16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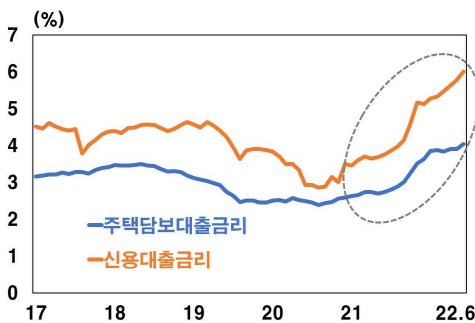
□ 주택전세가격은 전세대출금리 상승, 실거주 규제 완화\*에 따른 전세공급 확대\*\* 등으로 소폭 하락할 전망

\*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8.1일)

\*\* 전국 아파트 전세매물(일평균, 만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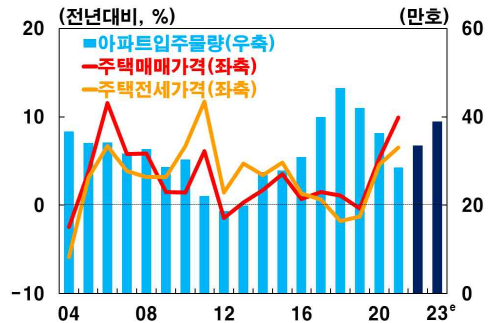
22.1~5월 11.2 → 6월 12.0 → 7월 13.5 → 8월 14.1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sup>1)</sup>



주: 1) 신규취급액 가중평균금리  
자료: 한국은행

주택가격 및 입주물량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조사국 추정

## <주요 전망 전제치>

(전망의 기본 가정)

- (우크라이나 사태) 군사적 긴장 및 제재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긴장(intense) 국면은 겨울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제
- (중국 봉쇄조치)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로 간헐적 봉쇄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가정
-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이 당초 예상보다 가속화되는 것으로 가정

- 2022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주요국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3.1%로 전제
  - 2023년은 2.9% 성장
- 세계교역 신장률은 4.1%로 전제
  - 2023년은 3.5% 증가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간 평균)는 배럴당 101달러로 전제
  - 2023년은 93달러 수준

### 전망 전제치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상반	하반	연간	
▪ 세계경제 성장률(%) <sup>1)</sup>	6.1	3.1	3.0	3.1	2.9
미 국	5.7	2.6	0.8	1.7	1.0
유 로	5.3	4.7	1.0	2.8	0.9
중 국	8.1	2.5	4.3	3.4	4.7
일 본	1.7	0.9	2.4	1.7	1.5
▪ 세계교역 신장률(%) <sup>1)</sup>	10.1	4.6	3.6	4.1	3.5
▪ 국제유가(달러/배럴) <sup>2)</sup>	69	103	99	101	93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두바이유 기준

## Ⅱ. 거시경제 전망

### 1.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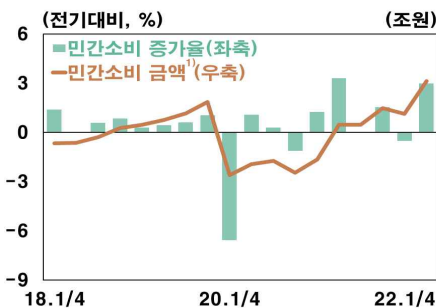
#### (1)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2/4분기중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빠르게 회복
- 향후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개선과 일상회복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가계소득은 양호한 고용 회복과 임금 상승으로 꾸준히 증가
    - 최근 취업자수는 소비 주력층인 30~50대를 포함하여 전 연령대에서 확대
  - 소비심리의 경우 현재 경기판단 및 향후 경기전망을 중심으로 6~8월중 크게 위축되었으나 소비지출 전망은 하락폭이 제한적

2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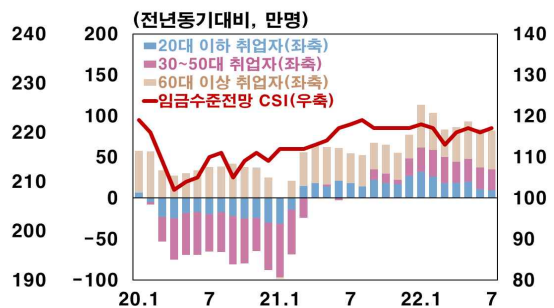
- ▶ 소비자심리지수(19.12월=101.1) 104.4 103.1 103.2 103.8 102.6 96.4 86.0 88.8
  - ▶ 소비지출전망 CSI(19.12월=109) 111 110 114 114 116 114 112 110
- 자료: 한국은행

GDP 민간소비



주: 1) GDP 실질금액(계절조정) 기준  
자료: 한국은행

취업자수 증감 및 임금수준전망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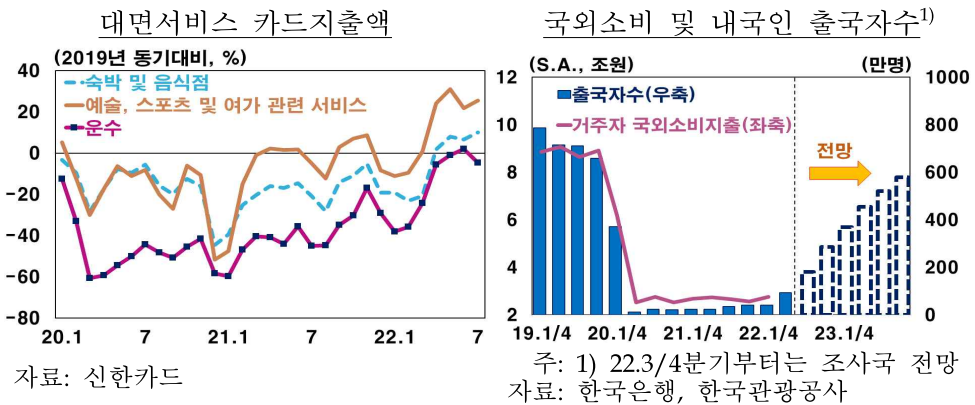
□ 부문별로는 서비스소비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국외 소비는 확대될 전망

○ 서비스소비는 일상회복이 지속되면서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

○ 국외소비는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

\* 각국 여행 전문가 대상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6%)이 금년 또는 내년중 해외여행이 2019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답변(UNWTO, 22.6월)

○ 재화소비는 승용차 수요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서비스 소비 회복에 따른 대체효과로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및 경기 불확실성 증대는 소비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저소득층 및 원리금상환규모가 큰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여력이 줄어들 가능성

⇒ 민간소비는 금년중 4.0%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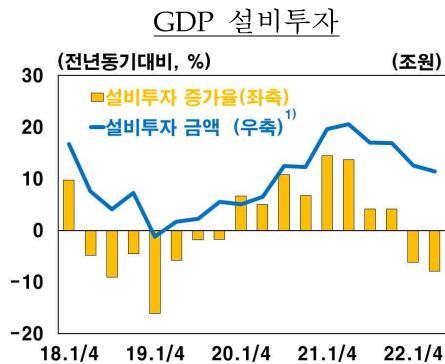
○ 2023년에는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

민간소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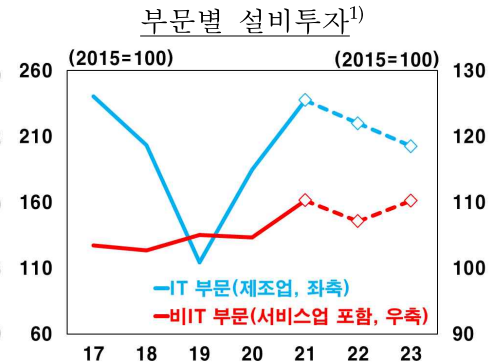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2022 <sup>e)</sup>		2023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3.7	4.2	3.8	4.0	3.1	2.1	2.6	

## (2) 설비투자

- 2/4분기중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차질 및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감소
- 향후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자본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회복이 지연될 전망
  - 다만 금년 하반기에는 진행중인 반도체 업종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일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



주: 1) GDP 실질금액(계절조정) 기준  
자료: 한국은행



주: 1) IT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기준, 비IT는 IT부문 제외  
자료: 조사국 추정

- 제조업은 IT부문 투자가 하반기중 일시 개선되었다가 조정되겠으며, 비IT부문 투자는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
  - IT부문은 해외수요 둔화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 재고 증가로 내년중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주요 IT제품 가격 <sup>1)</sup>	22.3월	6월	8월 <sup>2)</sup>
- D램(DDR4 8Gb, 현물가, 달러)	3.85	3.38	2.69
- LCD TV 패널(55인치, 달러)	109	92	84

주: 1) 월평균 기준 2) 8.22일 기준  
자료: DRAMExchange, TrendFo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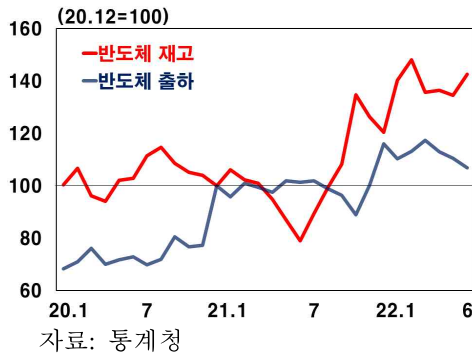
- 반도체는 국내 일부 기업의 대규모 증설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글로벌 IT 수요 약화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하향 조정

▶ 주요 IT 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방향(22.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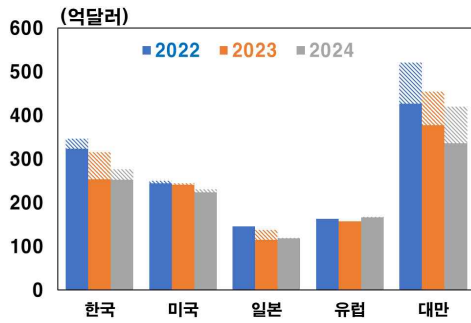
- SK하이닉스 : “청주공장 증설 보류(4.3조원 규모), 내년 설비투자 상당폭 조정 불가피”
- 삼성전자 : “재고를 통해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 설비투자도 이에 맞게 탄력적 운영”

- 디스플레이의 경우 패널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투자가 위축

반도체 제조업 재고 및 출하



주요국 반도체 시설투자(CapEx<sup>1</sup>) 전망<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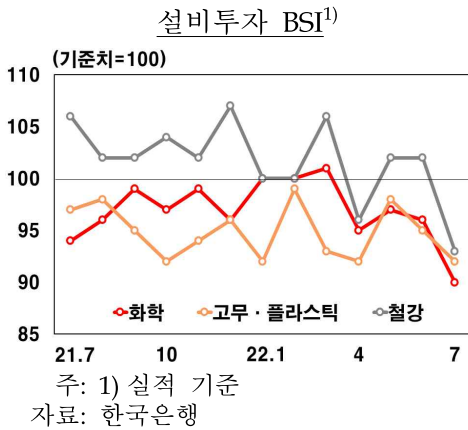
주: 1) 회계상 자본적 지출  
2) 22.7월 전망, 빗금은 3월 전망대비 감소폭

자료: Gartner, 한국반도체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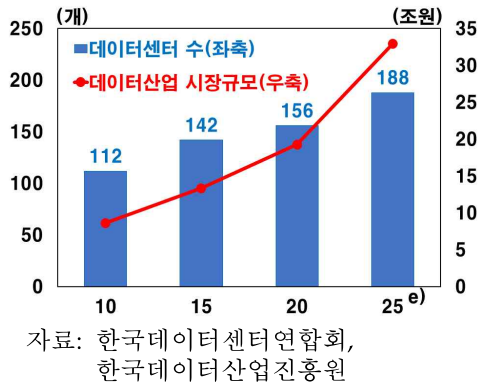
- 비IT부문 투자는 글로벌 수요 둔화, 금리 상승 등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낼 전망
- 화학은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철강·금속가공은 중국의 수요둔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
- 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전기차 등 신성장부문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가 지속

□ 서비스업은 정보통신, 항공운수를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할 전망

- IT서비스 및 통신 업체들은 디지털 전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 및 5G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추세
- 아울러,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팬데믹 이후 운항규모를 크게 줄였던 항공기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국내 데이터센터 수 및 데이터산업 규모



⇒ 금년중 설비투자는 3.8% 감소할 전망

- 2023년에는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설비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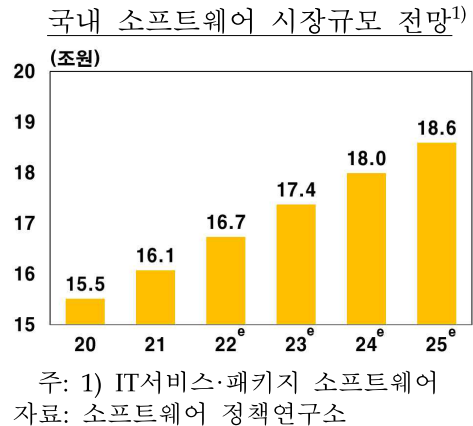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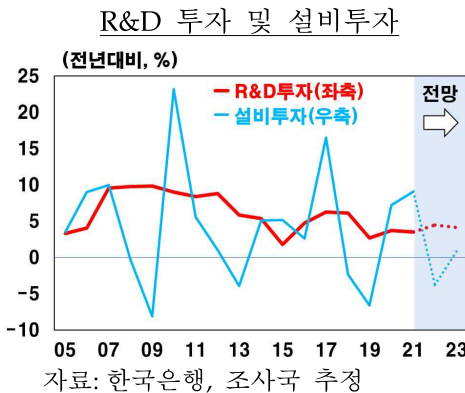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9.0	-7.1	-0.2	-3.8	3.1	-1.4	0.9



### (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R&D 투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신성장부문 R&D 확대, 정부의 정책지원 등으로 증가할 전망
  - 반도체, 자동차 업종의 주요 기업들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운드리, 전기차 등 신성장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추세적으로 확대
-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클라우드 도입 확대 등으로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지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금년중 4.0% 증가할 전망

- 2023년에는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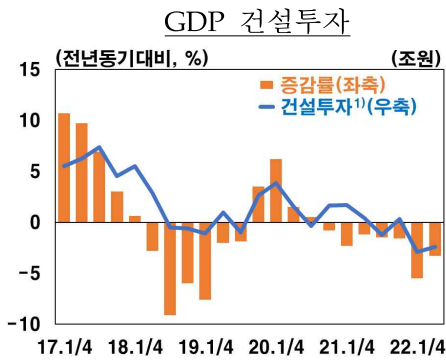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4.4	4.5	3.6	4.0	3.2	3.7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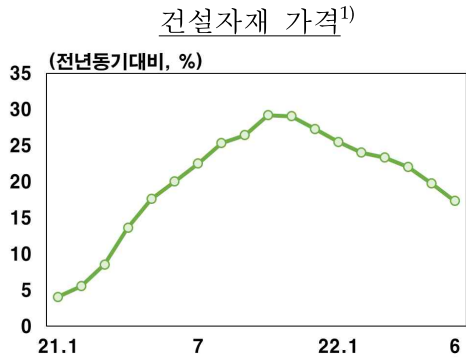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 (4) 건설투자

- 2/4분기중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늘어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
- 향후 건설투자는 건설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분양물량 증가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 기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수요 둔화는 제약요인으로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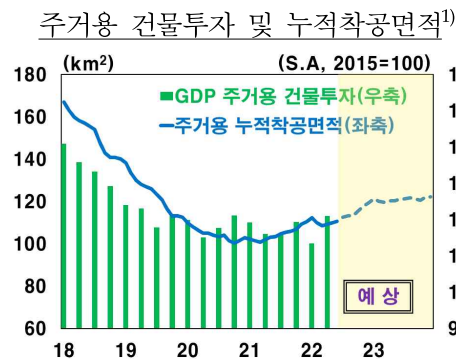


주: 1) GDP 실질금액(계절조정)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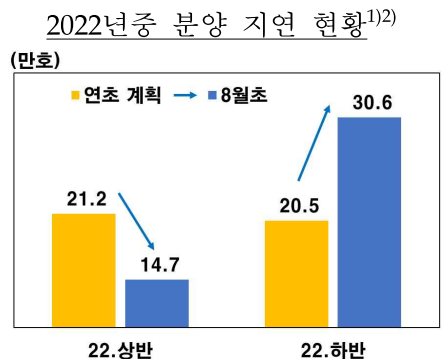


주: 1) 건설용 중간재 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주거용 건물건설은 상반기에 지연되었던 신규분양이 점차 실행되면서 공사물량이 늘어날 전망
  - 주택공사물량이 상반기중 신규분양 지연으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주: 1) 직전 33개월 합산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조사국 추정



주: 1) 사전청약 물량 제외  
2) 22년 분양계획중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물량은 하반기에 포함  
자료: 부동산114

□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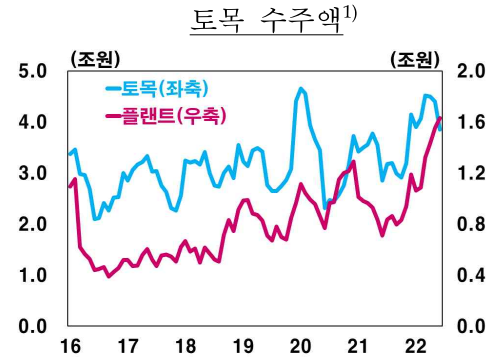
- 상업용 건물건설은 서비스업 업황 회복에 힘입어 공사물량이 증가 추세를 지속
- 반면 공업용 건물건설은 글로벌 경기 등 설비투자 여건 악화를 감안할 때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토목건설 투자는 민간 플랜트 건설의 호조에 힘입어 증가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민간 토목은 지난해 이후 크게 늘어난 플랜트(발전소 등) 수주가 착공으로 이어지면서 증가세를 지속
  -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1.8조)이 본격화될 경우 증가요인으로 가세
- 정부 SOC투자의 경우 상반기중 건설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



자료: 통계청



주: 1) 명목기준, 6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 건설투자는 금년중 1.5%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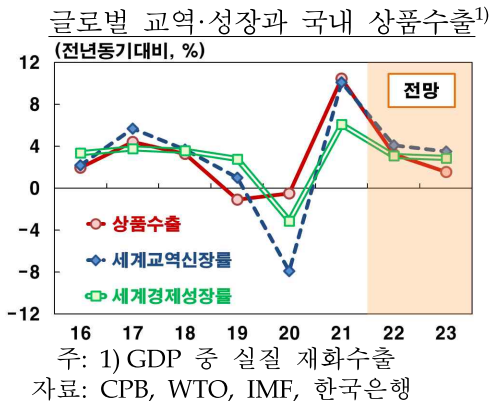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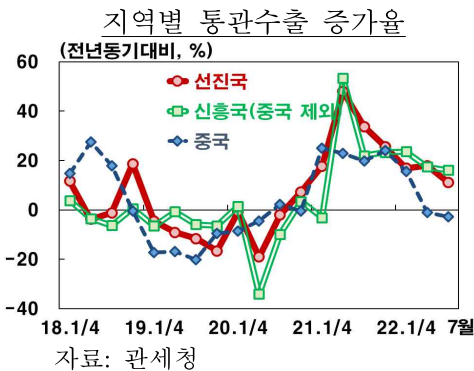
- 2023년에는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

건설투자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1.6	-4.3	1.0	-1.5	3.3	1.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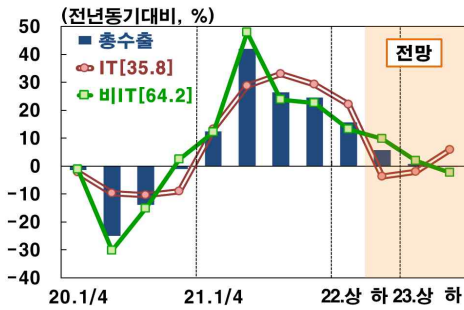
## (5) 상품수출

- 최근 상품수출(GDP 실질 재화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입수요가 약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
  - 7월중 통관수출은 對미국·EU·아세안5 등이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對중국 부진이 지속되면서 둔화
    - 8월 들어서도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크게 축소
      - \* 일평균 수출 증가율(%): 22.2/4분기 13.8 → 7월 13.9 → 8.1~20일 0.5
- 향후 상품수출은 중국, 미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증가세가 보다 약화될 전망



- 품목별(통관기준)로 보면, IT(B2C)·비IT(화공품·철강 등) 모두 경기예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축소
  - (IT) B2C(스마트폰, PC) 부문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단가 하락이 지속되며 하반기 들어 감소 전환
    - B2B(서버)의 경우, 기조적으로 수요는 양호하겠으나 경기여건 악화로 점차 둔화세를 나타낼 전망
    - D램가격은 하반기중 공급과잉이 심화되며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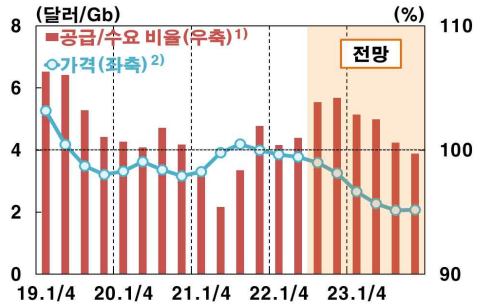
### IT<sup>1)</sup> 및 비IT 수출<sup>2)</sup>



주: 1) 반도체·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패널·컴퓨터  
2) [ ] 내는 2021년 기준 수출비중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 D램 수급 및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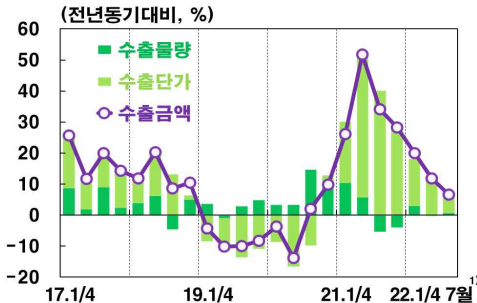


주: 1) 기준치=100 이상은 초과공급, 이하는 초과수요  
2) 8Gb 평균가격 기준

자료: Gartner (22.6월)

- (비IT) 화공품·철강·기계는 주요국 수요 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약화
  - 다만 자동차는 반도체 공급부족 완화 등으로, 석유제품은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증가 지속
- (무통관수출) 스마트폰 수요 부진, 반도체 단가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

### 화공품 수출 금액·물량·단가



주: 1) 22.7월은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전망

기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전망 (전년대비, %)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Gartner (22.6월)	26.3	7.4	-2.5
IC Insights (22.6월)	24.6	11.0	-
WSTS (22.8월)	26.2	13.9	4.6

자료: 각 기관

⇒ 상품수출은 금년중 3.2% 증가할 전망

- 2023년에는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상품수출<sup>1)</sup> 전망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10.5	5.9	0.8	3.2	-1.5	4.6
					1.6

주: 1) GDP 중 실질 재화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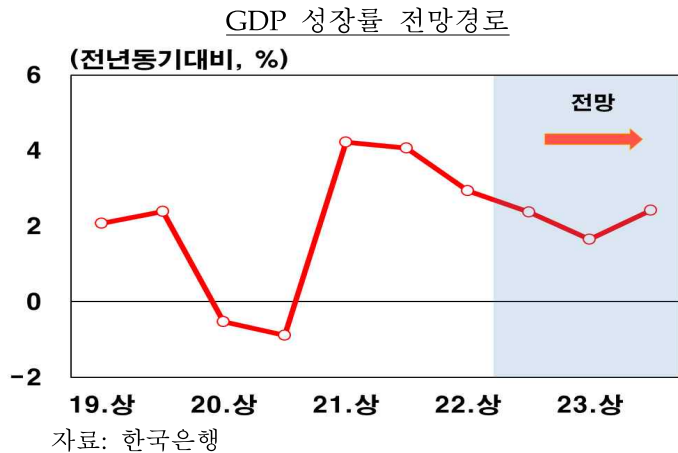
## (6) GDP 성장률

□ 경제성장률은 금년중 2.6%, 내년중 2.1% 수준을 나타낼 전망

	2019	2020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 경제성장률(전년대비, %)	2.2	-0.7	4.1	2.6	2.1

○ 국내경제는 2/4분기중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 둔화 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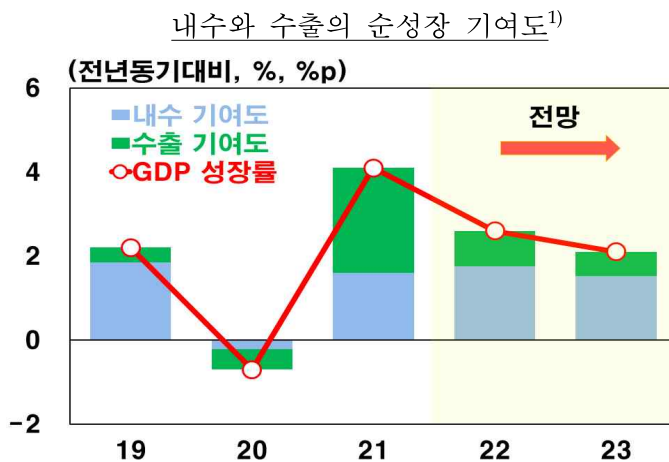
###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4.1	2.9	2.4	2.6	1.7	2.4	2.1
민간소비	3.7	4.2	3.8	4.0	3.1	2.1	2.6
설비투자	9.0	-7.1	-0.2	-3.8	3.1	-1.4	0.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4.5	3.6	4.0	3.2	3.7	3.5
건설투자	-1.6	-4.3	1.0	-1.5	3.3	1.3	2.2
상품수출	10.5	5.9	0.8	3.2	-1.5	4.6	1.6
상품수입	12.8	5.2	0.6	2.9	0.9	3.2	2.1

-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금년과 내년중 내수 기여도는 지난해에 이어 큰 폭의 플러스를 나타내겠지만 수출 기여도는 지난해에 비해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p)	2019	2020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 GDP	2.2	-0.7	4.1	2.6	2.1
내수	1.9	-0.2	1.6	1.8	1.5
수출	0.3	-0.5	2.5	0.8	0.6

-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상방리스크) 지정학적 불안 조기 완화, 소비 회복모멘텀 강화, 중국 경기부양책 확대 등
  - (하방리스크) 주요국 금리 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지속 등



주: 1) I/O표를 이용하여 세부 지출항목별로 수입유발 효과를 차감하여 시산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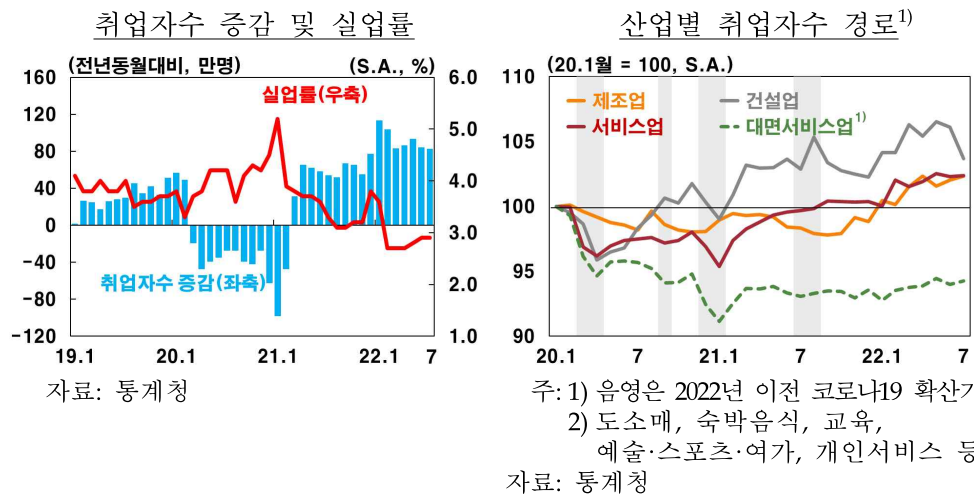
## 2. 고용

### (1) 동향

- 2/4분기 이후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거리두기 해제 등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
  - 7월에도 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에서도 증가폭이 확대
  -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

(전년동월대비, 만명)	22.1/4	2/4	5월	6월	7월	
취업자수 증감(전체)	100.1	88.0	93.5	84.1	82.6	
산업별	▶ 제조업	6.6	13.2	10.7	15.8	17.6
	▶ 건설업	7.6	5.7	7.2	5.0	1.6
	▶ 서비스업	79.8	58.9	62.4	53.8	52.8
종사상지위별	▶ 상용직	75.5	90.9	90.0	89.9	89.5
	▶ 임시일용직	16.8	-7.1	-1.2	-13.2	-12.9
	▶ 비임금근로자	7.8	4.2	4.6	7.5	6.0

- 7월중 실업률(S.A.)은 2.9%로 전월(2.9%)과 동일





□ 한편 노동시장 수급 측면에서 보면 타이트(tight)한 상황이 2/4분기 중에도 지속된 것으로 평가

○ 빈일자리율\*(vacancy rate)은 2/4분기중 상승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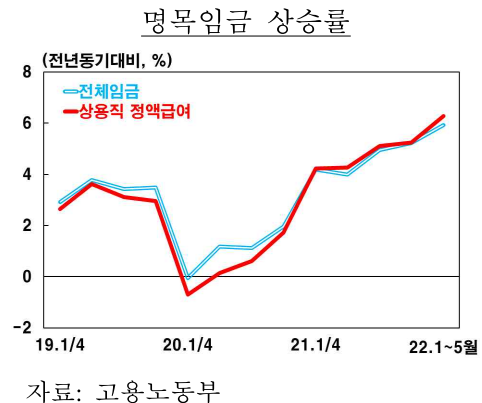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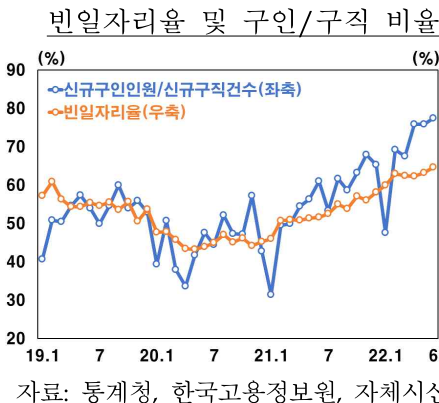
\* 22.2/4분기중 빈일자리율(빈일자리수/(빈일자리수+근로자수))은 1.2%로 위기 이전(19년 평균 1.0%) 대비 0.2%p 높은 수준

○ 구직건수는 낮게 유지되는 가운데 구인인원이 증가하면서 구인/구직 비율\*도 상승

\* 6월중 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건수 비율(77.5%)은 13.6월(86.9%)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명목임금은 금년들어 오름세가 확대

○ 1~5월중 전체 근로자 명목임금은 전년동기대비 5.9% 올랐으며 이중 상용직 임금은 6.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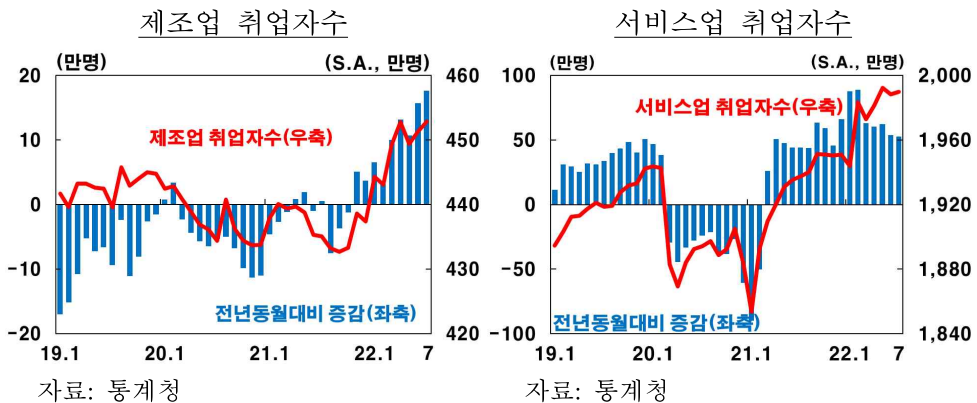
## (2) 전 망

□ 향후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겠으나 경기 회복세 둔화 등으로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전망

○ 제조업 취업자수는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증가폭이 줄어들 전망

○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감염병 유행규모가 축소되면서 비대면서비스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상회복과 함께 대면서비스의 일자리 회복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건설업 취업자수는 공사물량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둔화될 전망

⇒ 취업자수는 금년중 74만명 증가할 전망

○ 2023년에는 1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금년과 내년중 실업률은 각각 3.1% 및 3.5%, 고용률은 각각 61.9% 및 62.0%로 전망

고용 전망

(만명, %)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취업자수 증감 <sup>1)</sup>	37	94	53	74	10	18	14
실업률	3.7	3.2	3.0	3.1	3.7	3.3	3.5
(S.A.)	-	2.9	3.3	-	3.5	3.5	-
고용률 <sup>2)</sup>	60.5	61.6	62.1	61.9	61.6	62.4	62.0
	[66.5]	[68.1]	[68.6]	[68.4]	[68.5]	[69.3]	[68.9]

주: 1) 전년동기대비

2) 15세 이상, [ ] 내는 15~64세(OECD기준)

### 3. 물 가

#### (1) 여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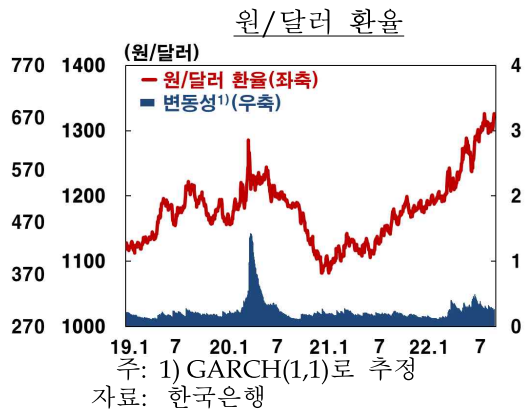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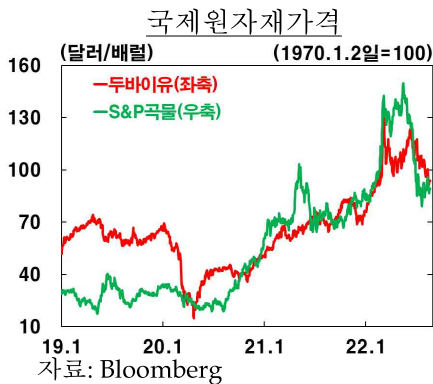
##### ( 해외요인 )

□ (국제원자재가격)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글로벌 수요둔화 우려, 투자자금 유출 등의 영향으로 하락\*

\* 두바이유가(달러/배럴, 기간중 평균): 22.6월 116 → 7월 106 → 8.1~23일 97

○ 곡물가격은 우크라이나의 해상 곡물수출 재개, 주요국 작황개선 기대 등으로 7월중 상당폭 하락

□ (환율)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긴축기조 지속 등에 따라 1,300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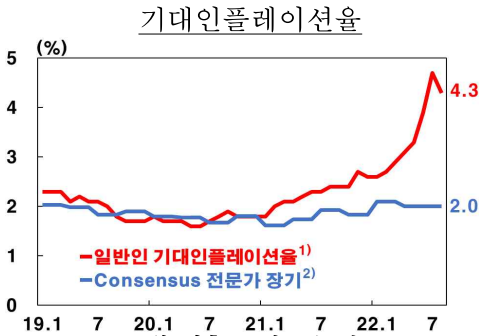


##### ( 국내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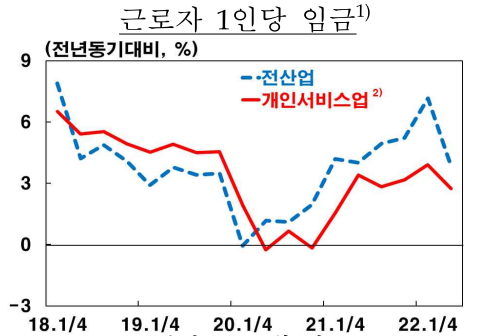
□ (국내수요) GDP갭률은 상반기 들어 플러스 전환

□ (기대물가)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은 하반기 들어 4%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7월 4.7% → 8월 4.3%)

- (노동비용) 명목임금은 정액급여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업종의 특별급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



주: 1) 22.7월 이후는 신표본 기준  
2) 5년 앞 기준  
자료: 한국은행, Consensus Economics



주: 1) 22.2/4분기는 4~5월 기준  
2) 음식·주점업, 숙박업, 사업시설관리, 교육서비스, 수리업, 스포츠·여가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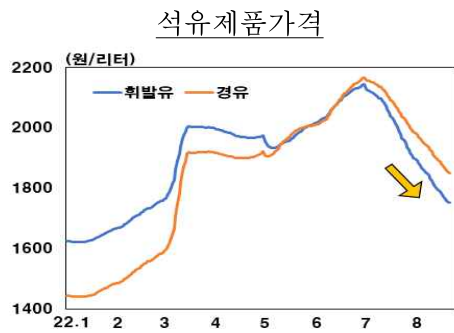
### (기타요인)

- (석유류) 석유류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유류세 인하폭 확대(30% → 37%)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 휘발유\* 등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상승률이 크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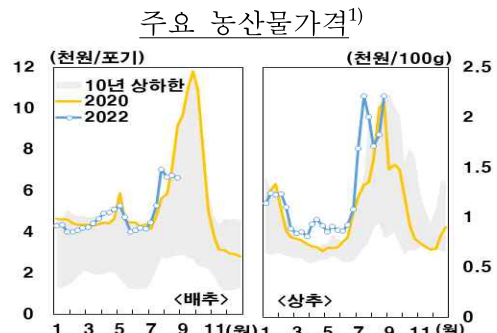
\* 8월 중순 이후 휘발유가격(원/리터)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인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1,700원대로 하락

- (농산물) 폭우·폭염 등에 따른 작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가격이 크게 상승

\* 채소가격은 봄철 기름에 이어 최근 장마·폭염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상추, 배추, 무, 양파 등의 가격이 평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



자료: 오피넷



주: 1) 최근 10년은 2011~2020년, 매월 순별 (초·중·하순) 자료 기준  
자료: KAMIS 농산물 유통정보

□ (정부정책) 전기료·도시가스요금 인상\*은 물가상승요인으로, 정부의 여타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지연은 하방압력으로 각각 작용

\* 금년 들어 전기료(4월·7월)와 도시가스요금(4월·5월·7월)이 꾸준히 인상된 가운데 10월에도 추가 인상될 예정

\*\* 서울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중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정부는 추석기간중(9.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중(8.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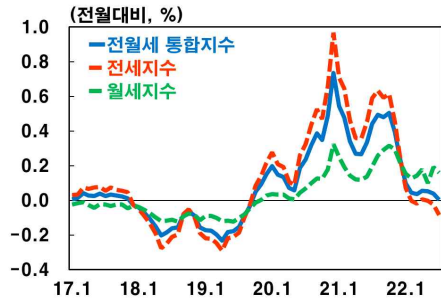
□ (집세) 금년 들어 전·월세(신규계약 기준)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점은 집세(CPI 기준) 오름세를 다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주요 공공요금 조정<sup>1)</sup>

분류		내용
인상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인상(4,5,7,10월)
	전기료	- 전기료 인상(4,7,10월)
	수도	- 하수도료 인상(강릉 등, 하반기)
인하	수도	- 하수도료 할인(청주, 서산 등, 상반기)
	의료	- 근골격계 MRI 급여화(논의중)

주: 1) 2022년중 시행된 조치 기준  
 자료: 정부·지방자치단체 발표자료, 조사국 서베이

전·월세 상승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 (2) 전 망

□ 금년중 소비자물가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압력 지속,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5월 전망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전망

- 단기 물가흐름은 최근 변동성이 커진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도 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지난 전망 수준을 웃돌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5.2%, 3.7%를 나타낼 전망

○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에너지 제외)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3.6%, 3.1%로 전망

### 물가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sup>e)</sup>	연간 <sup>e)</sup>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2.5	4.6	5.9	5.2	4.6	2.9	3.7
식료품·에너지 제외	1.4	3.1	4.1	3.6	3.7	2.5	3.1
농산물·석유류 제외	1.8	3.6	4.6	4.1	4.3	3.0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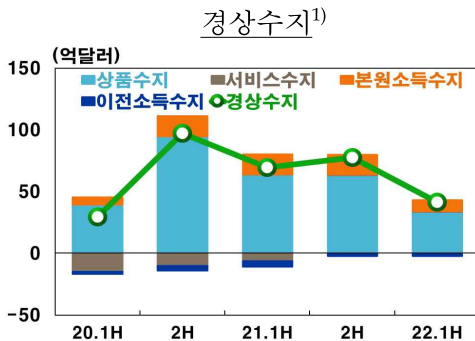
□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유가 반등</li> <li>▪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li> <li>▪ 공급망 차질 지속</li> <li>▪ 예상보다 강한 소비 회복세</li> <li>▪ 미 달러 강세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경기침체 가시화</li> <li>▪ 국내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화</li> <li>▪ 원자재 수급여건 개선</li> <li>▪ 공공요금 인상 억제</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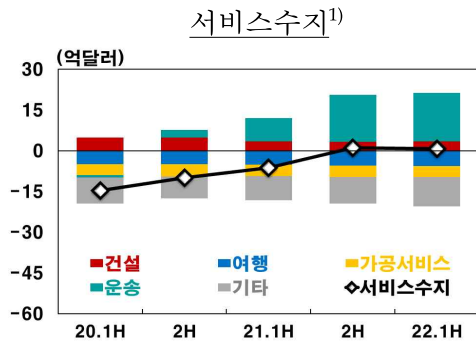
## 4. 경상수지

□ 금년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될 전망

- (상품수지) 무역수지 적자흐름이 이어지면서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
- (서비스수지) 운송서비스 호조에도 불구하고 방역조치가 완화된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확대
- (본원소득수지) 글로벌 경기둔화 및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축소로 투자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흑자폭이 축소



주: 1) 기간중 월평균  
자료: 한국은행



주: 1) 기간중 월평균  
자료: 한국은행

⇒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370억달러, 340억달러 수준을 나타낼 전망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21년 4.9%에서 금년중 2% 초반, 내년 2% 내외로 하락

경상수지 전망<sup>1)</sup>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	883	248	122	370	95	244	340
상품수지	762	200	105	305	166	293	460
수출(통관)	6,444	3,505	3,610	7,115	3,535	3,605	7,140
	(25.7)	(15.6)	(5.8)	(10.4)	(0.8)	(-0.1)	(0.3)
수입(통관)	6,151	3,610	3,795	7,405	3,610	3,520	7,130
	(31.5)	(26.3)	(15.3)	(20.4)	(0.0)	(-7.3)	(-3.7)
서비스수지	-31	5	-60	-55	-91	-109	-200
본원소득수지	193	57	103	160	55	95	150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Ⅲ. 주요 현안점검

####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리스크 점검

##### (1) 검토배경

- 미국·유럽은 경제활동 재개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회복을 견인
  - 그러나 최근 들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금리인상 가속, 전쟁 및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차질 지속 등으로 미국·유럽의 경기둔화 우려가 증대
    - 미국·유럽의 성장세가 약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뿐만 아니라 무역경로 등을 통해 우리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 ⇒ 최근 미국·유럽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살펴본 후 경기침체 가능성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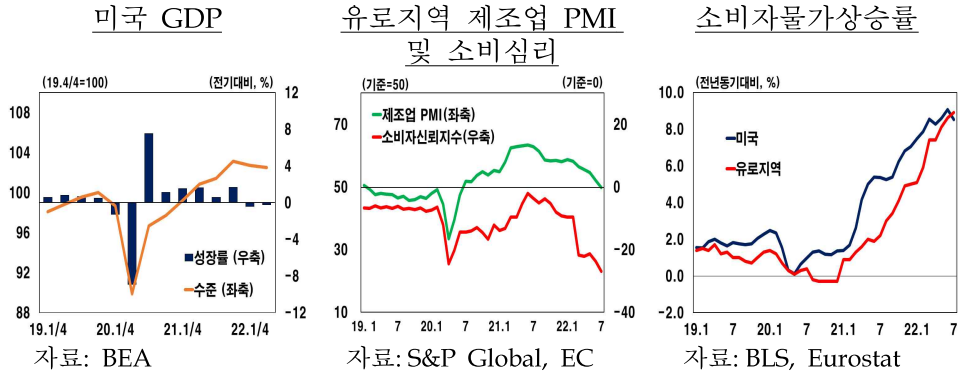
##### (2) 최근 경제상황 및 주요 리스크 요인

###### (최근 경제상황)

- (미국경제) 지난해 팬데믹에서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금년 들어 인플레이션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성장세가 점차 둔화
  -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월중 다소 낮아졌으나 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성장률은 고물가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중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한편 노동시장은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늘고 실업률이 팬데믹 직전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지속

□ (유럽경제) 상반기중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서비스업 개선으로 회복흐름을 이어갔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등이 물가 상승압력을 가중시키고 경기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월중 8%대 후반까지 높아졌으며 제조업 PMI가 기준치(50) 이하로 하락하고 소비심리도 크게 악화



**( 주요 리스크 요인 )**

□ (미국경제) 고인플레이션 지속과 이에 대응한 급속한 금리인상이 가장 큰 리스크이며 연준의 과도·미흡한 정책대응도 리스크를 확대시킬 가능성

○ 높은 인플레이션이 기대 불안, 임금과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고착화될 경우 금리인상 가속과 더불어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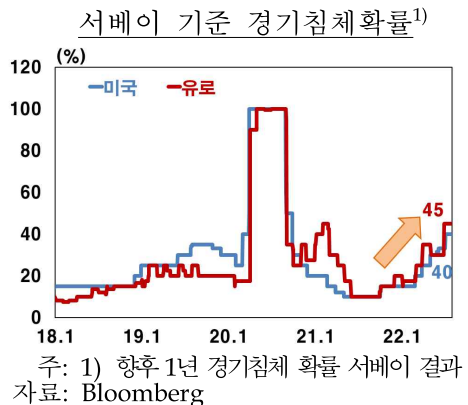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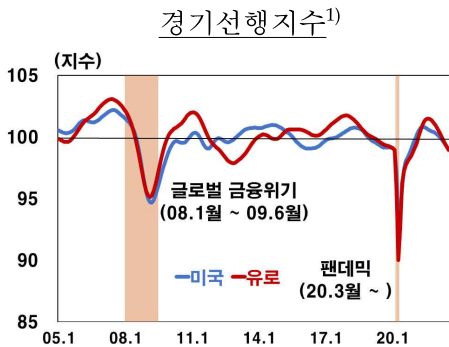
○ 한편 고물가 대응 과정에서 연준의 금리인상이 과도(overkill)하거나 미흡(underkill)할 경우 경기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

-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지나치게 빨리 금리를 인상시킬 경우 금융여건의 급격한 긴축으로 경기가 급랭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물가 장기화로 추후 더 큰 폭의 금리인상이 필요

- (유럽경제)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이 당면한 최대 리스크이며 전쟁, 이상기온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장기화도 지속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
  - 금년 들어 러시아가 가스공급을 축소할 가운데 가스공급을 전면 중단할 경우 경제활동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對러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이탈리아, 독일 등을 중심으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국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
  -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및 이상기온에 따른 공급차질 지속도 물가압력을 가중시키고 경기둔화를 심화시킬 가능성
    - 팬데믹,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하여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이어질 경우 물류 차질, 전력 부족, 식량 생산 감소 등을 야기하여 생산 및 물가에 타격을 줄 수 있음

### ( 미국·유럽 침체리스크 점검 )

- 경기선행지수와 서베이 등을 통해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의 경기부진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 ① (경기선행지수) 최근 미국과 유럽의 OECD 경기선행지수가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지속
  - ② (Bloomberg 서베이) 시장참가자 서베이에 나타난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확률(향후 1년 기준)도 중앙은행의 긴축기조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모습



### (3) 종합평가

- 최근 중국 성장세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유럽 경기가 둔화될 경우, 이들 국가와 교역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지표를 통해 점검해본 결과, 두 지역 모두 최근 들어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보다 유럽의 침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평가
  - 미국은 주로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정책을 통한 조정 여지가 있으며, 견조한 노동시장, 양호한 가계 재정상황도 충격의 영향을 완충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유럽의 경우에도 양호한 고용사정과 축적된 가계저축이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외생적 공급요인의 영향이 크고 국가간 정책여건도 상이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
  
- 미국·유럽 경제의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무역경로 등을 통해 우리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향후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그 전개상황과 경제적 영향을 주의깊게 점검해나갈 필요

## 부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 문	부 서	담 당 자
작성총괄	조사국	최창호 박창현
<b>I. 대내외 여건 점검</b>		
1. 세계경제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신흥국 국제유가 2. 국내경제      재정지출 부동산시장 <주요 전망 전제치>	조사국	강영관 박광용 강지현 김범준 이홍후 안시완 최영우 최재호 김민수 이현지 한채수 이승호 황보현 김민수 이승주 박광용 김범준 정선영 장동산 신동수 이혜경 박창현 진형태
<b>II. 거시경제 전망</b>		
1. 경제성장 (1) 민간소비 (2) 설비투자 (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 건설투자 (5) 상품수출 (6) GDP성장률 2. 고용 3. 물가 4. 경상수지	조사국	오태희 남명훈 이규환 이재운 남석모 이은송 조주연 황나운 윤용준 박동현 주 욱 이선경 김현익 박창현 조병수 주연희 한채수 이종하 임웅지 오강현 장병훈 김윤경 이재진 최열매 이선경 주욱
<b>III. 주요 현안점검</b>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리스크 점검	조사국	조사총괄팀, 국제경제부, 전망모형팀 공동